

보도 일시	2023. 2. 20.(월) 11:00 2. 21.(화) 조간	배포 일시	2023. 2. 20.(월) 09:00
담당 부서	축산정책관 축산환경자원과	책임자	과 장 정경석 (044-201-2351)
		담당자	사무관 정준구 (044-201-2353)

한우 출하기간 단축 등으로 온실가스 저감 나선다

- 농식품부, 저탄소 축산물 인증기준 마련 및 올해 한우부터 시범인증 실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축산분야의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구체화되면서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유도하고, 소비자들이 중요시하는 가치에 부응하고자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기준을 마련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탄소 농축산물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저탄소 축산기술을 활용하여 해당 품목의 기준배출량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 농축산물을 말한다. 농산물의 경우 2012년부터 인증제를 시행하여 2022년 기준 65개 품목을 대상으로 8천호 이상의 농가가 저탄소 인증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으나, 축산물은 저탄소 축산기술 등 인증기준이 확립되지 않아 저탄소 축산물 인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 1년여간 축산농가, 유통업계, 소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민정책디자인단을 운영하고 저탄소 인증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축산분야 탄소감축 활동을 발굴하고 저탄소 축산물 인증기준을 마련하였다.

축산분야 온실가스는 가축이 섭취한 사료가 장(腸)내 소화과정에서 미생물에 의해 발생하는 메탄(CH₄)과 가축분뇨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CH₄) 및 아산화질소(N₂O)로 구분된다. 2020년도 기준으로 축산분야 온실가스의 총배출량은 973만 톤(CO₂eq)으로 국가 총배출량의 약 1.48%(농업 전체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1990년 대비 67.2% 증가한 수치로 지속적인 육류 소비 증가에 따라 가축 사육두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가축 사육 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를 감안하면 축산분야 배출량은 더 늘어난다.

<축산분야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백만톤 CO₂eq)>

구분	1990	2000	2010	2017	2018	2019	2020	증감률	
								'90년 대비	'19년 대비
합계	5.8	7.3	9.1	9.1	9.4	9.5	9.7	67% ↑	2% ↑
A. 장내발효	3.0	3.4	4.3	4.4	4.5	4.6	4.7	57% ↑	2% ↑
B. 가축분뇨처리	2.8	3.9	4.8	4.7	4.9	4.9	5.0	79% ↑	2% ↑

이에 따라 정부는 축산분야의 탄소감축 활동을 지원하고 탄소중립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가치에 부응하기 위하여 저탄소 인증 기준을 마련하여 올해 한우부터 시범 실시하기로 하였다.

우선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농장 해썹(HACCP), 동물복지 축산농장, 깨끗한 축산농장 등 위생·안전, 환경 관련 인증을 1개 이상 받은 한우 농가만이 저탄소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농가 중에서 정부가 인정한 축산분야의 탄소감축기술을 1개 이상 적용하여 온실가스를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적게 배출한 경우 저탄소 축산물 인증농장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저탄소 축산농장에서 사육·출하하는 가축 중에서도 출하일령 및 도체중 등의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개체에 대해서만 저탄소 축산물 인증표시를 허용하고, 축산물이력정보 시스템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은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담당하게 된다. 인증의 유효 기간은 한우 사육 특성을 고려하여 3년으로 하며, 사육과정 점검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수행할 예정이다.

축산분야 탄소 감축기술은 농업 등 각 부분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유엔 산하 “기후변화정부간패널(IPCC)”에서 정하는 지침(가이드라인)에 따라 ①사육기간 단축, 저메탄 사료 보급 등 사양관리 개선, ②가축분뇨 바이오차, 적정 퇴비화 기술 등 가축분뇨 처리, ③에너지 고효율 설비 도입 등 근거자료가 확립된 경우에만 탄소 감축 효과를 인정받는다. 앞으로 탄소 저감 효과가 입증되는 새로운 기술도 지속적으로 추가해 나갈 예정이다.

한우 한 마리가 태어나서 30개월에 출하된다면 평생 배출하는 온실가스량은 5.9톤(CO₂eq) 정도로 추정된다. 이를 26개월로 4개월 사육기간을 단축할 경우에는 비육 후기의 메탄가스, 분뇨량 및 에너지 사용량이 저감되어 약 8.92%의 온실가스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리고 축사바닥 깔짚을 자주 갈아주거나 퇴비제조 시 강제로 공기를 주입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면 가축분뇨 처리 과정이나 퇴비화 과정에서 통상의 방법보다 30~50% 정도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인정받게 된다.

저탄소 인증을 받은 한우고기는 저탄소 인증 표시를 하여 시중에 판매되며 탄소중립이라는 가치를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대형마트 등과 협업하여 저탄소 인증 축산물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우 사육기간을 평균 30개월에서 26개월 수준으로 단축하게 되면 마리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함과 동시에 최근 농가 경영에 부담이 되고 있는 사료비도 1마리당 약 10% 가량 절감될 것으로 분석된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 활성화를 위한 국민정책 디자인단에 참여했던 한국 소비자연맹 김지현 팀장은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 저탄소 한우가 생산되면 마블링을 선호하지 않는 소비자들의 새로운 수요에도 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였다.

또한 한우협회 관계자는 “저탄소 인증제 참여는 국민들의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 라고 하면서, “향후 정부와 연계하여 많은 한우 농가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올해 저탄소 축산물 인증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한우농가는 3월부터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 농가에 대한 인증 절차가 진행되며, 이르면 올해 6월부터 저탄소 축산물 인증을 받은 한우고기가 시중에 판매될 예정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범사업을 통하여 축산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축산현장에 탄소감축기술 보급을 확대해 나갈 것” 임을 밝히고, “소비자들께서 저탄소 인증 한우고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 을 당부하였다.

붙임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비교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비교

구분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사전취득인증	친환경 또는 GAP	유기, 무항생제 축산물, HACCP, 환경친화, 방목생태, 동물복지,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 중 1개
인증기준	19개 저탄소 농업기술을 1개 이상 적용하여 품목별 인증 배출량 기준보다 적게 배출한 경우 인증	탄소감축기술 중 기준이 확립된 조항*을 적용하여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10%이상 적게 배출한 경우 인증 * 사육기간 단축, 도체중 증가 등 사양관리 개선,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에너지 절감 등
배출량 산정방법	농산물 생산 전과정*에 투입·산출되는 요소**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 영농자재 생산 및 농산물 생산 ** 비료, 작물보호제, 에너지, 기타자재, 물대기	출하일령, 도체중 및 사육단계의 온실가스 감축량 으로 산정 * 출하일령 및 도체중에 따른 감축량
배출량 산정기준	kgCO ₂ /1,000m ² ·1기작	지육 1Kg당 배출량을 산정
인증기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협조기관	컨설팅업체	국립축산과학원, 축산환경관리원(인증심사원 양성) 컨설팅업체
인증절차	신청→컨설팅→심사→인증→유통	신청→컨설팅→심사→농장인증→도축→최저 기준 확인→이력정보 표시→유통
인증품목	식량, 채소, 과수, 특용작물 등 65개 품목	전축종 * 한우에 우선 적용, 향후 전축종 확대
인증표시	저탄소 인증마크	저탄소 인증마크 및 안내 문구* * 예) "본 축산물은 축산농가가 자발적으로 탄소 감축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한 축산물입니다"
판매유통	미정	제도 도입 단계부터 생협 및 유통업체 협력
유효기간	2년	3년
인증건수(23)	500건	30~40건